

2022년 9월 25일(다해)

#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 (녹) 연중 제 26 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 교황님 기도지향 - 9 월 ]



#### 복음화 지향 : 사형제도 폐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사형제도가 모든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6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탐욕스러운 부자는 외면하시며, 무분별한 자들의 방종을 그치게 하시고, 짓눌리는 이들을 정의롭게 보살피십니다. 언제나 하느님 말씀에 충실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느님 나라에 받아 주실 것을 굳게 믿읍시다.

**제1독서**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6,1ㄱ-4-7

<이제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화답송**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 1ㄴ)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1서 말씀입니다. 6,11ㄱㄷ-16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계명을 지키십시오.>

**복음 환호송** 2코린 8,9 참조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9-31

<너는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영성체송** 시편 119(118),49-50 참조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 영성체 후 묵상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가난한 라자로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부자가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연중 제 26 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 오늘의 복음 묵상 - 허규 베네딕토 신부 ♣**

오늘 복음에서는 두 인물을 대조적으로 보여 줍니다. 부유하고 호화롭게 살았던 "어떤 부자"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라자로"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죽음 이후의 모습도 대조적입니다. 라자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지만 부자는 불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현세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현세에서 고통을 받던 사람은 위로를 받고, 편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였던 사람은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 복음이 말하고 있는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재화의 문제입니다. 루카 복음은 부와 가난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잔치를 벌이며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와 그 집에서 구걸하지만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라자로의 대조는,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가난의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루카 복음은 또한 재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숙고하게 합니다.

둘째는 가르침의 실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는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예언자들도 하느님의 길로, 정의의 길로 돌아오도록 호소합니다.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가르침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공동체 안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재화는 공동체와 공동선을 위한 것입니다.

**라자로를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루카 16,25)



**| 연중 제 26 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글구절



'부자와 라자로', 레안드로 바사노 작

얘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루카 16,25).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7년 여정하다 - 9월 Vol 4 호

[의식의 개선] 탄소중립

메타버스, IT 최첨단 시대를 살고있지만 전기를 만드는 방식은 아직도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고, 탄소 배출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무는 공간, 먹거리도 함께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40%를 줄여야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급선무합니다.

[생활의 개선] 탄소중립 로드맵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와 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교구 11개 본당을 선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50톤이었으며 많이 배출한 본당은 75톤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델링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만을 지표로 삼았으며 가스(난방)이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영역이었습니다.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교구로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하고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의 개선] 탄소중립 프로젝트, RE100이란?

RE100은 전세계 기업들의 탄소중립 프로젝트로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들자는 협약입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8월 23일 기준 SK, LG, 현대, 기아 등 22개 기업이 가입을 완료하였고 세계에서 4번째로 가입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매우 낮아 RE100 주관 단체인 더 클라이밋 그룹은 연간 보고서에서 한국을 RE100을 시행하기에 가장 힘든 시장 1위로 꼽기도 했습니다.



[9월 여정지 보기 - 이미지 클릭]

곽재식 교수가 말하는 탄소 중립을 위한 대책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RE100

환경전문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4) - 순교자 성월의 의미 <출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성월이란 일년 중 어느 달을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성인께 봉헌하여 특별한 전구와 은혜를 청하며 신자들이 모범을 따르도록 교회에서 제정한 달을 말합니다. 주로 축일과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순교자 성월은 바로 우리 신앙의 밑거름이 되신 순교자들의 신앙과 삶을 기념하고 본받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한국 순교성인 대축일(9월 20일)을 그 중심으로 합니다. 오래 전부터 9월을 한국 순교복자 성월로 기념하다가 1984년 103위의 복자가 시성됨으로써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삼임위원회는 6월 28일 그 명칭을 한국 순교자 성월로 개명했습니다. 따라서 순교자 성월 중 특별히 순교 성인들의 모범과 순교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전구로 보다 큰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예비심사 문서 교황청에 제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대표단은 2022년 9월 21일(수) 로마 시각 정오 12시에 교황청 시성부를 방문하여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의 시복을 위해 예비 심사 문서 일체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부분은 1960년 한국전쟁 전후로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증오'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적인 박해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이 분들의 시복을 위해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랍니다.



| 연중 제 26 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주간실천 |

**피해를 보호를 위한 507가지 손쉬운 방법 ①**

외출할 때 버스, 지하철로 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②**

절수기기 사용 늘리기

→ 1.58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CPBC 뉴스**

국내이주사목위원장  
정신철 주교 담화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담화문 전문링크

<https://cbckor.kr/Notice/20220768?gb=K1200>

**성경과의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입문 7]  
이것을 이해 못하면  
성경통독 실패합니다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본격적으로 성경통독(창세기)를  
읽기 전에 이해해야 할 내용

**Cpbc 가톨릭콘텐츠의 모든 것**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시노드 정신  
조경자 마리 가르멜 수녀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시노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주일 미사 참례자수**

9월 11일	성인 32 아이 13	9월 18일	성인 42 아이 18
--------	-------------	--------	-------------

**□ 우리들의 정성 (9월 17일(토)~23일(금))**

구민식	권요순	김요한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주정자	교무금 \$495 (12 가정), 봉헌금 \$335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 (9월 25일, 연중 26 주일 -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장호훈 마르코, 서은주 데레사  
(10월 2일, 연중 27 주일 - 군인 주일) 이상명 다니엘, 이명진 이사악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25일) 마르코반 → (10월 2일) 마태오반 → (9일) 루카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주 1회, 매월 첫째주 식사) : (10월 2일, 식사) 루카반 → (16일, 간식) 루카반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이준 미카엘(어린이), 배민아 미카엘라(어린이), 김우경 가브리엘라(마태오반), 김태룡 가브리엘(마르코반, 29일), 김은영(루카반), 박가연(마르코반), 안윤경(루카반), 안후승(요한반) (소화데레사 10월 1일)의 명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순교자 성월 기도

<https://missa.cbck.or.kr/Prayer/28>



♡ 매일 만나는 기쁜소식 (이미지 클릭)

하느님의 선물, 복음의 씨앗인 거룩한 말씀을 통해  
건강하고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